

다산포럼

메르스로 드러난 최악의 의료 공공성



황 상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고 자부해 온 한국의 보건의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체면을 크게 손상당했다. 특히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의료 공공성 문제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일제 강점의 후유증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는 설상가상 한국전쟁으로 극도로 피폐해졌다.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의료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했고, 의료 인력의 손실도 심각한 상태였다. 복구를 위한 재원도 크게 부족했다. 그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해 도움을 손길을 내민 나라가 전쟁의 한 당사국인 미국, 그리고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이었다. 이들 나라는 당시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였으며, 국민 건강 수준

도 가장 높았다. 이 무렵 세계보건기구 등의 지원도 있었지만, 규모나 성과 모두 그리 크지 않았다. 원조국 가운데 미국은 사적(私的) 의료 체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 반면에 스칸디나비아 3국은 당시에도 공공 의료체계의 모범국이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 이들 나라로부터 최첨단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두 가지 대조적인 의료체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던 셈이다.

1950년대부터 각국의 보건지표를 조사, 수집, 발표해 온 유엔인구국에 따르면, 1950~1955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48세였으며 영아사망률(어떤 해에 태어난 아기가 만 1세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로, 출생아 1000명당 사망한 영아 수로 나타남)은 138이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2세, 영아사망률은 3이다) 당시 미국(평균수명 69세, 영아사망률 31)이나, 북유럽 3국(평균수명 72세, 영아사망률 23)은 물론이고 일본(평균수명 62세, 영아사망률 50)과 비교해도 건강 수준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빈국 신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1950년대 한국인들의 건강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했지만 후진국들보다는 양호한 편이었고, 세계 평균치와 비교해도 약간 나은 정도였다.

흔히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국립서울대학교 협력사업’(1954~1961년)은 미국 정부기관인 국제협력본부가 미네소타 대학교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 등을 지원한 교육 원조사업이다. 미국은 전쟁 후 한국의 교육을 재건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했는데,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그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외 교육 원조사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였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전쟁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을 재건하는 데 가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울의대와 병원에서 행해지는 교육, 연구, 진료, 간호 업무에 지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그러한 영향은 전국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과 병원, 그리고 간호 분야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었다. 8·15 광복 후 한국의 의학과 의료는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화’하기 시작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중 의료 분야에 투입된 비용은 약 270만 달러였다.

1956년 한국 정부, 스칸디나비아 3개국 정부 그리고 유엔한국재건단 사이에 체결된 ‘국립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8년에 신축·개원한 국립의료원은 국내 최고 시설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흔히 ‘동

양 굴지’라고 불렸다. 당시 국립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아의 일급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한국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진의 진료 및 간호 실력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에는 개원 초부터 수많은 환자가 밀려들었다. 환자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은 데에는 최상의 시설과 진료 수준 이외에 환자의 75%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했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 요컨대 국립의료원은 당시 수많은 빈민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국립기관이었다.

애초 계획은 5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정부와 의료요원들의 물적·인적 지원을 받고 1963년 말에 한국정부가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독자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스칸디나비아의 지원은 5년 연장되었다. 그 10여년 사이 스칸디나비아가 지원한 액수는 무려 1530만 달러에 달했다.

1968년부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립의료원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예산의 감소였다. 이에 따라 무상 진료 환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진료비 지불방식도 이전의 종합수가제(포괄수가제)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바뀌었다. 요컨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다.

기 고

단통법? 이젠 ‘단말기유통법’으로 부르자



황 상 철
법제처 차장

얼마 전 중학생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시상을 위해 참석하러 갔다. 그 자리에서 상을 받는 학생이 포장된 상품을 보며 “문상이예요?”라고 물어봐서 적잖이 당황했다. ‘문상’은 조문(弔問)이라는 뜻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상이 끝나고 젊은 직원에게 물어보니 ‘문화상품권’을 ‘문상’으로 줄여서 쓴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만 쓰는 표현을 어른인 나에게 사용해서 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경험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면 그 약어를 모르는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음절을 축약해 약어를 만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일은 법률 제명(이름)을 인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 1300여건 중 제명이 10자 이상인 법률이 700여건이나 될 정도로 법률 제명이 길다 보니 기억하기도 힘들고, 언론이나 법조인들이 법률을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어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칭만 들고는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제명이 길어 줄여서 부르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약칭을 써야 많은 사람들이 약칭만 들고도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법률 제명의 약칭은 그 법률의 목적이냐 규율하는 대상에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법률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작년부터 길고 복잡한 법률 제명의 약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 약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학계, 국어전문가 등이 모여 법률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부르고 기억하기 좋도록 주의를 기울여 약칭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에는 음절의 단순한 축약으로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어감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단통법’이 아닌 ‘단말기유통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약칭은 ‘개특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어감이 좋지 않은 ‘폭처법’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약칭을 정했다. 이처럼 약칭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의 법률에 대해 통일된 약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공익사

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이 사용된 경우 그 손실의 보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인용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법원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고 하고 언론에서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여 제각각 약칭을 사용해 혼란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토지보상법’으로 통일하여 혼란이 없어졌다.

일반사람은 법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가짜나 법 내용이 어려운데 약칭까지 통일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법을 더욱 어렵게 느낄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이 약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669건의 약칭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부르고 이해하기 쉬운 약칭이 널리 활용되어 국민들이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社 說

왜곡·축소 亞전당 직제 개편 재검토하라

“아시아문화전당을 왜곡·편향한 대통령은 사과하고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상에 걸맞게 직제를 개편하라.” 광주 시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인력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이 깔려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직제 개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인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직제 개편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에서 기습 통과돼 지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박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이 깔려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인력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이 깔려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직제 개편 재검토를 촉구했다.

붕괴 위험 평화맨션 주거 대책 모색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균열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붕괴 위험이 있는 이 아파트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번 주 장마에 태풍 소식까지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지하 기둥 균열 사고 직후 실시한 구조 안전진단에서 거주해서는 안 되는 E등급(철거 후 재시공)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172세대 가운데 105세대만 다른 곳으로 이주했으며 나머지 67세대는 갈 곳이 없어 아직도 생명을 담보로 잡힌 채 계속 살고 있다. 이들은 당장 이주비용이 없어 붕괴 위험 속에서도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아파트를 떠난 주민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대 아파트나 전세, 월세, 친인척 집을 전전하는 등 기약 없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니그고통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평화맨션 주민들의 주거 해결책은

수준인 50명으로 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정원이 40명인 추진단도 8명으로 줄인 뒤 문화부 문화콘텐츠 정책실 아래 편입된다. 정부는 차관회의를 통한 문화전당 직제 개편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지 못한 채 뒷방문치고 있는 형편이다. 야당은 효과적인 정부 압박이나 여론 핵심 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야당은 당장 여론과의 물밑 대화에 나서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국책사업’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중지하고 문화부가 당초 마련한 계획안대로 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직제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재건축 추진이 유일하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과 그 시기를 놓고도 입주주민들끼리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입주주민들은 분양가 자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 자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주민들에게는 재건축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게다가 아파트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런 가운데 북구청이 최근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을 광주시에도 제출했다. 용역을 제한규정 완화를 통해 세대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개정 조례의 골자다. 안전행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방침 이후 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판에 구멍이 뚫렸거나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들고 나온 것은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길거리엔 내쫓기는 신세가 된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따뜻한 행정의 본보기 아니겠는가.

無 等 鼓

십수년 전 조경량항공기(Ultra Light Plane) 조종을 배우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비행기는 교관과 나란히 앉는 2인승 ULP로, 알루미늄 뼈대에 소형 엔진을 올린 아주 간단한 구조였다. 비행을 위한 첫 과정인 활주로를 달리는 ‘택싱’(Taxing)도 처음에는 만만치 않았다.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직진하는 자동차와 달리 하천가 비포장 활주로를 위한 첫 과정인 활주로를 달리는 ‘택싱’(Taxing)도 처음에는 만만치 않았다.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직진하는 자동차와 달리 하천가 비포장 활주로는 울퉁불퉁해서 원발과 오른쪽 페달(리더)을 수시로 조작해야만 가능했다.

때는 오금이 저렸다. 수차례 비행하며 기체가 내 의도대로 움직인다 싶을 때 부득이 날개를 접어야 했다. 1997년말 우리나라가 IMF(국제 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경제 위기를 맞은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언젠가는 다시 배워 ‘단독 비행’을 하고픈 소망을 품고 있다. 세계일주에 나선 ‘솔라 임펄스2’가 화제다. 연료없이 날개에 부착한 1만 7000여 개의 태양광 전지판에서 전력을 얻어 프로펠러를 돌리는 ‘태양광 에너지 비행기’다. 제작사 CEO인 앙드레 보르슈베르그(62)가 11시간51분동안 혼자 조정하며 일본 나고야~하와이 간 태평양 8200km를 무사히 비행했다. 야간에는 주간에 저장한 전력을 사용했다.

태양광 비행기

‘택싱’이 익숙해진 후애 본격적인 비행을 할 수 있었다. 맞바람을 받으며 엔진 출력을 최대한 높여 달리다 보면 어느새 기체가 ‘둥글’ 떠올랐다. 자동차 운전과 배우듯 직진, 선회, 이·착륙 과정 등을 반복해 배웠다. 강중에선 정면의 먼 산을 목표로 직진하려 해도 측면에서 부는 바람결에 밀려 사선으로 날아가기 일쑤였다. 그래서 풍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짙막한 털실을 붙여 놓았다. 비행하는 동안 ‘날고 있다’는 박찬 기분을 만끽하다가도 간혹 기류 때문에 몇 미터 정도를 ‘뚝’ 떨어질

때는 오금이 저렸다. 수차례 비행하며 기체가 내 의도대로 움직인다 싶을 때 부득이 날개를 접어야 했다. 1997년말 우리나라가 IMF(국제 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경제 위기를 맞은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언젠가는 다시 배워 ‘단독 비행’을 하고픈 소망을 품고 있다. 세계일주에 나선 ‘솔라 임펄스2’가 화제다. 연료없이 날개에 부착한 1만 7000여 개의 태양광 전지판에서 전력을 얻어 프로펠러를 돌리는 ‘태양광 에너지 비행기’다. 제작사 CEO인 앙드레 보르슈베르그(62)가 11시간51분동안 혼자 조정하며 일본 나고야~하와이 간 태평양 8200km를 무사히 비행했다. 야간에는 주간에 저장한 전력을 사용했다. 그는 5일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쉬지 않고 비행했을까? 1927년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 파리까지 5815km를 33시간32분에 걸쳐 무작복 비행한 찰스 린드버그를 연상시킨다. 일면 무모해 보이지만 보르슈베르그 역시 태양광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의 역사를 쓰고 있다. /송기동사회2부장 song@

청춘 특·특

청춘, ‘나의 푸른 봄날’이라 부른다



정 희 한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학년

‘청춘’이란 ‘만물이 생기 가득하게 피어나는 때’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의 젊은 나이 또는 그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주위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한창 좋을 때’, 바로 ‘청춘의 때’라고 부른다. 나는 인생의 선배들이 먼저 다녀간,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란 것만 같았던 고등학교 시절, 그 때의 나는 많은 밤을 하얗게 불태우며 공부에 매달렸고 오로지 성적에 올고 있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대학’이라는 문턱을 힘겹게 넘고 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나도 다른 환경과 분위기 앞에서 무척 당황했다. 대입이라는 협산준경을 넘느라 소진한 에너지를 재충전도 없이 ‘취업’이라는 이름의 육중한 관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인생은 자기 앞에 놓인 여러 개의 관문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씩 열어가야 하는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감지하며 불안하고 흔들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모두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청춘’이란 말인가? 지금 모습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청춘이 얼마나 될까? 영화 ‘스물’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좋을 때, 좋을 때다 자꾸 그러는데 애매하게 뭐가 없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데 어른들은 배부른 소리라 그러지” 이 영화를 본 청춘들은 이 부분에서 격하게 공감했을 것이다. 부지런히 스펙을 쌓고, 주변 눈치를 살피며 취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좀 더 유리한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고민하고 노력한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똑바로 가고

있는지 문득 문득 치마는 불안감에 오늘이 여전히 버겁다. 세상 모든 것을 왕성한 호기심으로 탐험하고 알아가며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 인생의 미래를 꿈꾸어야 할 청춘을 올리는 오늘, ‘현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생각이 늘 머릿속을 맴돈다. 솔직히 ‘청춘’이 그토록 좋은 시절인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청춘’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이고 무모하지만만큼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해본다. ‘인생’이라는 광활한 캔버스에 이제 막 ‘청춘’의 구획 그려나가는 ‘나’. 힘들면 힘든 대로 행하면 행복한다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그려 가보려 한다. 비록 지금은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뜨거운 열정과 성실한 노력의 색채가 청춘의 장면에 가득하도록, “불확실하기에 가슴 설레었고, 무모하기에 용감할 수 있었노라고”, 훗날 ‘청춘’을 공금해 하는 이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해주고 싶도록,..... ‘성공’이 무엇이며 내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또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다. 돈과 권력이 성공의 척도로 자리잡은 현실 앞에 많은 청춘이 ‘나의 길’ 찾기를 포기하는 게 슬픈 현실이다. 스무 살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의 문구가 문득 생각이 난다. ‘문이 아무리 많아도, 열지 않으면 그냥 벽이다. 되도록 많은 벽을 두들기고, 되도록 많은 문을 열어봐. 청춘이라는 보호막이 너의 실수를 용납해줄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무기는 ‘젊음’이고 ‘청춘’이다. 그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좋다. 부딪히고 깨지고 수도 없이 망가져도 괜찮다는 것을, 그것들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고 인생의 배움이라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것이든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 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그 누구 보다 그 어떤 때 보다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이다. ‘청춘’, 훗날 그 이름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그저 묵묵히 걸어 가야겠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시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